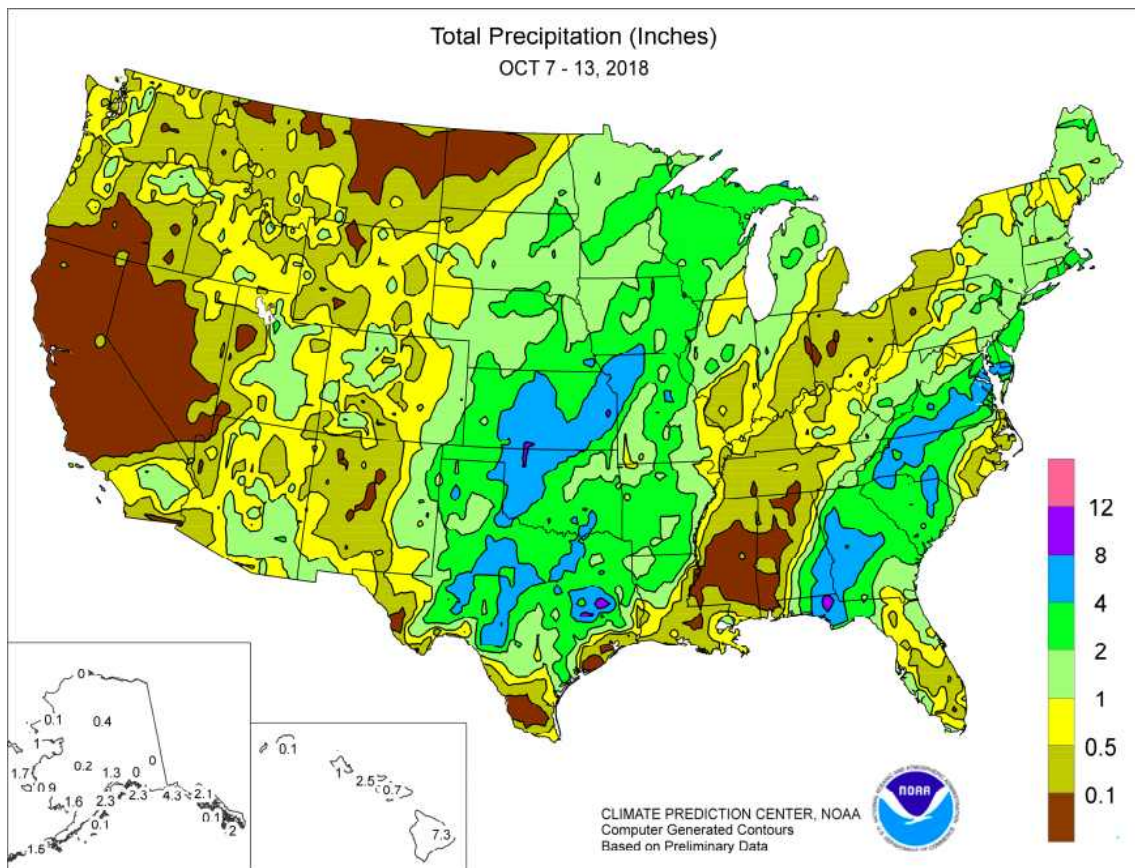


10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42)

□ 미국 기후 현황(10/7~10/13)

허리케인 Machael이 플로리다와 파나마 시티에 10월 10일 상륙했다. 상륙 당시 최고풍속은 155mpg로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이었으며 강풍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19세기 이후부터 걸프만 연안의 알라배마 남부에서부터 플로리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매년 3급 이상의 강력한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플로리다 남부, 알라바마 남동부, 조지아 남서부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차량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중서부 일대에서도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인해 2~6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과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첫 눈이 내렸다.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5°F 이상 낮았고, 오대호 주변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10/8~10/14)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과 미시시피 강 하류 일대 및 북동부, 남동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로키산맥 일대 및 캘리포니아 남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낮았다. 남부 및 중서부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 2인치 넘는 비가 내렸고, 남동부 지역에서도 허리케인 Michael의 영향으로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0/7~10/13)

■ 유럽: 동유럽과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독일 등에서는 기온도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다. 독일과 폴란드 북서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특히 스페인 일대의 가뭄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 구소련(서부):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주 초반에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파종작업이 재개되었다.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4°C 정도 높았고, 특히 평균 기온도 밀의 휴면이 시작되는 온도인 5°C 보다 높았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국 북부 평원 일대에서도 옥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며, 밀의 파종작업도 시작되었다. 양쯔강 일대에서도 벼의 수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겨울작물의 파종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남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북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서는 1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을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최근 파종작업을 마친 지역에서는 발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및 빅토리아 북부에서도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비가 자주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확량 전망은 밝지 않다. 서호주에서도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와 남호주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서부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Buenos Aire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후반까지 오르내렸고, 북서부의 Santiago del Ester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내렸다. 한편, Buenos Aires의 일부 지역 및 La Pampa 등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Buenos Aires와



La Pampa 등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브라질: Mato Grosso와 Goias 남부 및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Sao Paulo, Minas Gerais까지 확대되면서 사탕수수, 커피 재배지 일대에도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8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지난 주와 비슷한 수치인 62%를 기록했고,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38%, 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Mato Grosso와 Tocantins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서부 일대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의 10월 12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27%를 기록했다.